



완두

다비드 칼리(글), 세바스티앙 무랭(그림), 이주영(옮김)/ 진선아이



● 작아서 더욱 특별한 완두의 성장 이야기
“작으면 어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1.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과 소감을 적어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 작고 귀여운 완두의 모습은 너무 사랑스럽죠? 가끔 책의 표지가 새롭게 바뀌기도 합니다. 리커버(Recover)라고 하는데요. 2020년 여름, 가에서 나로 달라진 한정판 <완두>책의 표지를 살펴보세요.



2-(1)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어느 그림이 더 마음에 드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적어주세요.

2-(2)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 말고 혹시 표지그림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나요? 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표지그림으로 하고 싶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3. 완두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하고 놀았습니다. 완두가 즐겨 했던 것들은 어떤 일들인지 무얼 하면서 놀았는지 찾아서 적어보세요.

4.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즐겨 하는 놀이나 취미 활동이 있나요?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놀이와 취미 활동인지, 왜 좋아하는지도 소개해주세요.

☆ 놀이나 활동:

☆ 이유:

5. 완두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은 혹시 초등학생이 되면서 내가 남들과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적어주세요.

6. 작은 완두를 보니 <엄지 공주>나 <조막만한 조막이>의 주인공도 생각나네요. 혹시 이런 몸이 너무 작은 경우를 포함해, 너무 크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외모가 좀 남들과 달라서 특별한 사람들 중 열등감에 빠져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서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명만 소개해주세요. (위인, 운동선수, 음악가, 연예인, 화가 등등)

이름	직업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 이야기

7.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완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완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주세요.

완두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자에 앉아도 몸이 너무 작았고,
리코더를 연주하기에도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 작았어요.
접시는 또 어찌나 크지...
밥을 먹기에도 완두는 너무 작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완두는 늘 혼자였어요.

8. 여러분이 <완두>책의 표지를 다시 꾸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멋지게 그려주세요.

